



主 題
病 院 司 牧

*****제 20 차 세미나초록*****

演 題

병원사목과
수녀의 역할

권 금 순 수녀

<부산 성분도병원 원목실>

Nun's Role in
Hospital Apostolate

Sr. Augusta Kwon

St. Benedict Hospital
BUSAN

" 삶은 모험이다 " 라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서 계된 저에게 한 말씀같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의 원목생활이어서 이렇다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도 없이 저 나름대로 현재까지 사목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다른 활동보다도 전교생활에서 보다 큰 가치를 발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해온 원목생활을 말씀드리고 이모저모로 고견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용기있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도 모르고 완치만을 고대하고 있는 환자를 대해야하는 원목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를 매일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목생활을 하다보니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환자들의 치유와 중환자들의 임종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있는 환자들이 치료비 관계로 의논을 구할 때는 농아가 되고싶은 심정이 되곤 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환자를 상대로 사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주어 환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갈 때, 그리고 환자들이 돈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잠시 소외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병원사목은 특수사목이고 특수분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수시로 청해오는 환자들을 위

해 치료비를 부담해주시는 어느 가톨릭신자가 아
닌 의사선생님의 애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때
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교우의사선
생님께서 어려운 환자를 집까지, 손수 차를 몰아
데려다 주시고, 가정을 방문해서 전교하시는 모습
은 원목의 중요함을 재인식하게 해주는 각성제가
됩니다.

1978년 9월 현재, 우리 병원에서 종사하는 300
명의 직원중에서 교우직원은 63명입니다. 원목의
혜택은 환자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여
러 직원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황보고 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병원에
서는 매월 1회 환자 및 전직원을 위한 미사봉헌을
하고 있는데 반수이상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미사봉
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조건으로
불편한 부산이지만 고명하신 강사님이 오시면
초빙하여 환자들과 전 직원을 위해 교양강좌도 개
최합니다.

가톨릭병원을 거쳐가시는 의사 및 여러 직원들에
게 교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에게 가톨릭의
개념을 알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느껴서, 인턴교육
부장님과 의논한 후 인턴교육과정속에 교리시간을
마련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 병원 강의실
에서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병원에 꼭 계셔야할 분 즉 간호원, 미화부
직원, 간호학생 등을 위해서도 강요는 없이 교리시
간을 마련했으나 여건때문에 계획한 대로 실시하
고 있지 못하므로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환자 한분 한분을 위해 방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환자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으나 각
기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에 따
른 다양한 원목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
히 부산은 불교신도인 환자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문이 매우 좁지만, 불교신도 환
자를 방문할 때 문앞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하면서 문안을 드리면 환자가 으
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안도감을 가지는 모습에 접
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 믿음의 유연성을 보여주
실때 간접선교의 힘이 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암자나 사찰에서 불교신도들을 위하여 신방염불
을 하러오시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방문안 오셨을 때 염불을 하시라고 권유해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또 개신교 신도들의 방문객은 너무 잦은 병실출입
과 고성예배로 공동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는 점이 없지않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
도 되고 여러 환자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라
도 있을 것이라 믿고, 가톨릭병원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권유하므로써 고루한 종교감정이 없어지는 것
을 느꼈고 그들 즉 개신교도들도 일치된 기쁨을 느
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톨릭교우 환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교우라
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우환자가 입·퇴원한 것도 모
릅니다. 입원수속을 할 때 종교란을 만들어 기재하
도록 하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만 큰실효는 보
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원목
행정의 부실한 면이라고 생각되어 마음 한구석이
시원치 않고 가책이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가톨릭신자인 환자에게는 묵념
기도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신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많
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톨릭신자를 방문해서
방문안 기도를 드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아픈 사
람에게 목주의 기도나 까테나 등은 너무나 지루하
지 않은 기도를 하면 환자 본인이나 다른 환자들에
게나 유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환자 즉 소생활 희망이 없는 환자가 있을때 의
사, 레지넌트, 인턴, 간호원들이 그 환자의 종교
와 관계없이 대체를 주기를 요청하실 때는 전교 및
원목생활의 진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자신이 무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
람도 있지만 종교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가 종교인
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목활동에
서는 종교의 이론보다, 종교인들의 애덕이 봉사정
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병원에서는 간접선교를 위하여 원목과에서 마
련한 도서를 매일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 신간서
적의 구입안내를 원내 4개소의 게시판에 공시하고
있으며 매일 축일표를 보고 교회 대축일 전이나 매
주 토요일 오후에 주일준비및 영혼에 양식이 될만
한 것을, 복음성경이나 양서에서 뽑아서 병원 곳
곳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효
과를 보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직접 원목실로 찾아

와서 기쁜 마음을 전하거나 복음성경등의 양서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보고, 또 토요일 오후 방송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번에는 방송을 않느냐”고 전화로 문의해오시는 일반직원들을 보고 매스컴의 힘과 간접선교의 효과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전교방법을 연구한 끝에 원내 네곳의 게시판에 수시로 복음말씀과 명구등 짧은 글을 써서 붙여 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외래환자 및 직원들도 모두 잠시 게시판앞에 멈추어서 읽고가거나 또 적어가는 것을 보고, 더욱 열의있고 충실하게 원목활동을 하라시는 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의부손님은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계속할 것을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전교의 방법으로 병동부도 5개소에 서가를 마련하여 환자들이 손쉽게 교회간행물을 읽을 수 있도록 가톨릭시보, 경향잡지, 가톨릭소년, 사목지 및 소원지 등을 진열하였는데 의외로 이용도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977년 11월부터 1978년 9월까지 약 170명의 대세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승락을 얻어 행하였으며 그후 완쾌하여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세자들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위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승락을 얻어서 행했습니다.

대세를 준 후의 처리는, 각 지역 본당에 대세문서와 동시에 가정방문 및 환자방문의뢰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데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대세자나 일반환자들에게서 완쾌여부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방문이나 서신왕래 등을 통해서 환자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퇴원후의 연락관계에 치중해서 계속적으로 전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병원에서는 교우환자 봉성체를 위하여 노사제님을 모시고 있는데 대축일주일에는 5.6명씩 봉성체 환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본당이 있는 교우환자들을 위해서는 본당으로 전화나 서신 등의 방법으로 병문안 연락을 드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분들을 위해서는 봉성체 준비와 내적생활에 도움을 주고 신앙생활의 지도를 위해서 방문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배조당으로 묶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교우환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에 소홀한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했던 분들이 다시 각성하고 몇년만에 고백성사를 하고 싶어할 때는 참으로 기쁩니다. 또 각 본당에서는 교우환자들이 신자의 신분을 감추지 않게끔 신자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병원에서는 대세자가 있을 때 게시판에 공고해서 우리병원의 공동체에게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공고를 보신 의사선생님께서서는 그 환자의 병실을 직접 방문해주시기도 합니다.

사목의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앞에서 모두 한 형제자매이며 기도의 통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은 맞이해야 하는 길이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대세를 줄 수 있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세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면 우리병원의 수녀님들은 연도를 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묘지까지 가서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년 동안의 저의 원목생활의 이모저모와 병원사목에 있어서 수녀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